





# 영원한 백승의 진로를 밝혀준 역사적인 카론회의

혁명의 수도 평양의 대동강반에 높이 솟아 빛을 뿌리는 주제사상탑!

오늘도 주제사상탑을 우리르는 천만민들의 마음은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제사상을 창시하시어 영원한 승리의 기치,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의 만년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로 끝없이 달린다.

역사적인 카론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이인 85돌기의 년분이 새겨졌다.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영원한 백승의 진로를 밝혀주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제사상을 창시하시어 주제혁명의 새시대를 개척하시어 주제사상을 구현하여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주체사상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지금으로부터 85년전 카론회의 진명학교 교정에 차넘친 환희와 열정이 오늘도 생생히 어려온다.

일찍이 깃발한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셨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었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이며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 동원하여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심원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시었다.

이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19(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카론회의 진명학교에서 공청 및 반제 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를 여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제적립장을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을 추억하시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는 투쟁의 나날에 심어지고 옥중에서 부르짖은 그 사상과 림장을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을뿐이다, 그것이 곧 우리 혁명의 로선으로 되고 지도사상으로 되었다. 우리가 그 논문에서 전개한 내용을 보면 모두가 주제사상을 핵으로 하였다고 할수 있다라고 감회깊이 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어 조선혁명의 진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제적 신념의 고귀한 산이었고 그의 의의의 투쟁과 헌신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어 해진신 그 길에는 원수들의 총성이 도사린 위험천만한 사신의 고비들도 있었고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던 감옥도 있었다.

그를 두고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감옥에서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을 총화하였고 그 교훈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설계하였다. 돌이켜보면 나의 아버지는 평양감옥에서 민족주의운동으로 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한 민족주의의 아들들이어서 아버지도 나도 감각없이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쓰신 회고록의 글말이 인민의 심금을 울린다.

돌이켜보면 망국의 그 세월 찬다운 혁명의 길, 투쟁의 진로를 찾지 못해 이 땅의 사람들이 지르어야 했던 대가는 얼마나 값비싼 것이었는가. 가장스러운 일제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을 안고 침략의 원흉의 가슴

팍에 총탄도 퍼부었다. 민족평화회의장에 선혈을 뿌리며 독립을 청원해보기도 하였다. 3.1인민봉기에 떨쳐나 독립만세를 외치며 부르짖어도 보았다. 하지만 차레진것은 실패와 좌절뿐이었다. 더욱 길어간것은 망국노의 피맺힌 설움과 슬픔뿐이었다.

새로운 지도사상을 요구하고있던 당시의 시대적박성을 절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나온 역사를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시며 조선혁명이 나아가길 길을 두고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조선혁명을 하는것만큼 우리 나라의 주제적인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 조선의 산 현실에 부합되는 옳은 지도리론을 내놓자면 고전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절대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심원한 뜻을 더욱 굳히시었다.

우리가 믿을것은 인민대중의 힘밖에 없다. 2천만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하나로 묶어세워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협정을 버려라! 사대와 교조가 범람하던 그 시기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셨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어 인민이라는 거창한 대학에서 조선혁명에 대한 주제적립장을 정립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카론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어 역사적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카론회의에서 제시된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그리고 항일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당창건 방침 등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우리 수령님의 주체의 신념과 자주정신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론회의에서 주체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신것은 조선혁명의 진로를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로선, 전략전술이 마련되었다.

카론회의를 계기로 우리 인민은 혁명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민족해방과 주제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전세계에서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거대한 역사적공적이 있는것이다.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승수승주하여온 조선혁명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론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제적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악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실현하신 영원불멸할 업적에도 그리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기적적승리에도 력력히 어려웠던것은 백두명장의 자주적 신념이다.

이민위원을 평생의 지론으로, 좌우영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담아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방침들에 힘차게 고고치고있던것은 바로 주체의 신념이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쟁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철저히 구현해오신 정치리념이며 명도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위업은 주체의 혁명위업이며 우리가 가는 길은 주체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다. 주체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주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영원히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총칭하게 계승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제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신화속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

져다준것과 대비조차도 할수 없는 거대한 인류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주체사상은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으로서 그 어떤 시대에도 다 적용되는 영원한 《현제형》의 혁명학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천출위업상을 두고 온 세상사람들이 그가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동방에서 살건 서방에서 살건 그토록 높이 칭송하고있던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쳐 수호하고 빛내이신 주체의 기치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명도야말로 세기와 세기를 이어 힘차게 휘날려왔다.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력사의 모진 시련을 짓부셔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강성번영의 강위력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업적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또 한편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빛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식으로,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위업은 주체의 혁명위업이며 우리가 가는 길은 주체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다. 주체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주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영원히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총칭하게 계승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제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신화속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꾸리는것은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위대한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유서깊은 보천보혁명전적지를 감동시어주는 가림천은 크지 않은 강줄기이다. 우리 조국의 어디에 가나 흔히 볼수 있는 물줄기이다.

하지만 력사의 가림천은 우리 인민의 마음과 마음속으로 흐르고 있다.

가림천이 유영해있는 보천보 전투가 있는 그날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황천나무 아래에서 력사적인 총성을 울리신 그때 가림천은 격랑을 일으키며 얼마나 세차게 출렁이었던가. 거센 대하도, 망망한 대양도 가림천이 없으면 력사의 승결을 가림천의 물결은 간직하고있었다.

총천하는 화광속에 꿈결에도 그리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을 묻어주시어 모신 인민들의 감격이 오슴과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친근한 모습을 담았던 가림천.

뜻깊은 력사의 증적자라고만 하기에는 그 호를이 너무도 많은 것을 담고있는 가림천이었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가 있는 때로부터 강산이 변하는 10년이 몇차례나 거듭되는 과정에 가림천은 본래의 모습과 달라져가고있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서서히 진행되는 자연의 변화에 대하여 누구도 크게 관심을 돌리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적지의 산천이 옛 모습을 달리하고있는데 대하여 관심하시었다.

인민들의 뇌리에 새겨지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사의 폐지에 기록된 혁명전적지의 모습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려고 깊이 마음써오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꾸리고 보존관리하는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가림천도 보천보전투 당시의 원상대로 정리할때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그의 교시는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가림천을 보천보전투 당시의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새기면 새길수록 깊은 의미를 담고있었다.

일군들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보천보시가를 들이치고 조국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던 그날의 모습이 선히 안겨왔다.

조국해방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모습이 어리여있는 가림천, 어제날의 가림천과 오늘의 가림천을 대비해보는 일군들은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자라나는 세 세대들에게 혁명전적지의 산천초목을 보여주어 옛 모습 그대로의것을 보여 주어 전설과 사실이 가슴속에서 새겨지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

일군들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원상대로 꾸리는 사업이 혁명의 넋이 깃들여있는 성스러운 고장의 산천을 옛 모습대로 보존하여 대대손손 전해가 기 위한 사명이 깃들여있는 것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혁명력사에 빛나게 기록되고 사람들의 머리에 깊이 새겨진 가림천의 넋이 깃들여있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현명한 명도가 있었기에 자기의 참모습을 되찾게 되었으며 변함없는 력사의 그 모습 그대로 보천보혁명전적지를 감동시어주고 있다.

항일의 혁명전통이 깃들여있는 영광스러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은 영원히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남아 후손대대에 자기가 체현보존하시려고 깊이 마음써오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한낱한시에 새겨에 입사하는

《조선중앙통신》

본사기자 김철혁

본사기자 김인선

본사기자 김인선

#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농장

1 면에서 계속

이 영예로운 과업을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맡겨주시었으며 공사 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세심한 보살핌이 은 무한한 힘과 불굴의 정신력의 근본원천이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명도하시어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농장 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건물들의 형성안을 일일이 지도하여주시었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고 말하였다.

올해 평명성절에도 농장소재지마을과 남새은실들을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정성이 반짝 들게 꾸밀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농장원들과 평양시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산악같이 떨쳐나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로써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농장의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일신시키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과 수도시민들의 다함없는 힘과 열화같은 총성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들을 행복과 문명의 최절정에 올려세워주시기 위하여 온갖 사랑과 은정을 끝없이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그는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성국가건설기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림으로써 주제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운명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총정수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결사옹위하는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리를 영원히 잊지 말고 농장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교시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실남새를 비롯한 농작물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수행하여야 한다.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마련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남새은실들에 대한 정상유지, 정상관리를 짜고들어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야 한다.

당조직과 일군들은 5대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공개적으로 벌려 농장원들을 참다운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이 땅우에 온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의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지상낙원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

였다.

중공식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시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날 당의 은정속에 현대적으로 새롭게 일떠선 살림집들에 새김들이경사가 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떠받들려 농장이 21세기의 본보기, 표준으로 천지개벽된 현실이 너무도 꿈만 같아 잠 못 이루던 농장원들의 가슴가슴은 커다란 환희와 격정에 젖어들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를 우리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행복하

경사를 맞이한 농장원들의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다.

그들의 열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넘쳐내어 보강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해갈 열의가 한껏 넘쳐있었다.

장천지구에 펼쳐진 로동당시대의 선경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며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인민사랑의 결정체로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자랑한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유훈관철의 길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온 굴지의 광물생산기지

## 위대한 장군님께서 검덕광업연합기업소와 통양광산을 현지도하신 40돛에 즈음하여

### 력사의 갈피에 아로새겨진 40년전 7월 1일

주제 64(1975)년 7월 1일은 검덕과 통양의 광부들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울려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수수한 싸리안전을 쓰고 지심깊은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찾아 인차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은 40년 세월이 흐른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힘찬 결력으로 둘러싸인 마천령의 숲의 깊은 산골짜기 찾아오신 것만도 영광인대 막장에만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막아서신 일군들에게 영안과 들어가지 않을 바에야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겠는가, 광부들을 찾아온 우리들이 막장에도 안들어가고 그냥 돌아 가면 되는 심해한다고 하시며 수심나 그치는 막장으로 들어간 우리 장군님이시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석수호르는 땅속 깊은 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시며 그들조차 느끼지 못했던 사소한 불편도 헤아려주시었다. 인차에 조맹장치를 해주어 노동자들이 영안에 드나드는 시간에도 신문같은 것을 보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일군들을 깨우쳐 주시고 안전모를 벗었다 다시 써보도록 하시며 안전등을 어깨에 걸쳐보도록 하시며 안전등을 더 간편하게 할 수는 없는가, 손에 들지 말고 안전모에 달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이르시었다.

우리가 막장에서 전투를 벌리는 것도 결국은 로동계급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광부들을 아껴야 한다고 하시며 그들을 막장에서 재우지 말고 꼭 밖에서 나가서 자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광부들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겠다.

검덕의 로동계급은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과 뜨거운 정으로 인연을 맺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은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면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백이 자발적으로 되고 집단적혁신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검덕으로 온 나라 인민이 앞을 다투며 달려가고 있었다. 수백명의 예술인들이 검덕에서 일대 선전선동공세를 벌리고 있었고 단천과 흥남, 황천과 강선의 로동계급 그리고 보견일군들이 달려왔다. 수도의 편 의봉사부문 일군의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산(당시)이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검덕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 전당, 전국이 검덕을 지원하고 있는데 나도 오고 싶어 왔습니다라고 하시며 광부들이 일하는 천길지하막장은 물론 시야밖새가 감도는 선광장을 비롯한 광산의 구석구석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나라의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산(당시)이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는 데서 생산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벌려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사상전열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면서 경제선동도 생산일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집단지적혁신과 기적을 안아오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심장에 새겨주시신 잊을 수 없는 7월 1일이었다.

마그네사이트광산기지로 유명한 통양

광에 둘러싸여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동자들의 생활조건부터 먼저 료해하시면서 그 곳 일군에게 광부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사소한 것까지 다 제기하라고 다정히 이르시었다. 로천체술을 하는 조건에서 매가, 휴대용복합기와 같은 선전선동기재들이 있으면 경제선동에 아주 유리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까지 헤아려주시고 물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을 통양의 일군들도 심장에 새겨안았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산중력에 새겨져 있는 《여기에 있는 들산은 《금산》이며 《돈산》입니다.》라는 어버이수령님의 1961년도 현지교시의 한 구절을 오래동안 보고 또 보시며 지 명에는 마그네사이트광산을 발전시킬 때 대한 수령님의 현대한 구상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때 수령님께서 여기서 나는 들은 금과 같다고 하시면서 분광까지 모조리 처리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는데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관철을 어떻게 하고있다고 일군에게 물으시었다.

분광을 처리하기 위한 선광장을 건설하였다는 것과 앞으로 그 능력을 계속 높여 나가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며 광산의 대담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다고 간곡하게 이르시었다.

보슬비가 옷을 적시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서도 혁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첫 영웅소대의 소대장인 7호골 착기소대장에 올케계획을 얼마나 더 할지 생각은 하고 물으시었다. 7호골착기소대장이 올케계획을 5배로 넘쳐 하겠다고 적격하게 보고올려자 옆에 섰던

2, 8광구(당시)의 착공기소대장도 5배의 결의목표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고 힘차게 대답을 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5배, 대단합니다, 정말 광부들이 수고합니다, 동무들을 만나니 나도 새 힘이 솟습니다, 동무들, 보시오, 우리 로동계급은 이렇게 충실합니다, 이런 로동계급에게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입니다, 로동계급이야말로 사람도 경제도 문화도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선봉부대입니다라고 활력에 넘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검덕과 통양의 로동계급에게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혁의 신념과 의지를 키워주시고 그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있어 검덕지구는 대와 대를 변혁의 력사로 수놓으며 전진할수 있었다.

하기에 그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흐른 2002년과 2009년에 검덕광업연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몰라보게 달라진 검덕의 전변을 두고 그러도 기쁘시어 만만치 않게 자랑한다는 감은은 평가를 주시었다.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에 통양광산을 찾으셨을 때에는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하여 청춘광산으로 전변시킨 백금산의 광부들을 함들의 불길창조자들의 한 성원으로 시대 앞에 내세워주시었다.

언제나 로동계급으로 들어가서 태양의 모습으로 환히 웃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영상을 마음속으로 우러르고 또 우러리며 검덕과 통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심장수맥을 다진다.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의 그날의 유훈을 언제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영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광물중산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것입니다!

**위훈을 물려주기**  
**검덕의 불소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사상혁명,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의 그날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 중앙의 예술인들을 망라한 강경도 문화도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선봉부대입니다라고 활력에 넘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검덕과 통양의 로동계급에게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혁의 신념과 의지를 키워주시고 그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있어 검덕지구는 대와 대를 변혁의 력사로 수놓으며 전진할수 있었다.

하기에 그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흐른 2002년과 2009년에 검덕광업연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몰라보게 달라진 검덕의 전변을 두고 그러도 기쁘시어 만만치 않게 자랑한다는 감은은은 평가를 주시었다.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에 통양광산을 찾으셨을 때에는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하여 청춘광산으로 전변시킨 백금산의 광부들을 함들의 불길창조자들의 한 성원으로 시대 앞에 내세워주시었다.

언제나 로동계급으로 들어가서 태양의 모습으로 환히 웃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영상을 마음속으로 우러르고 또 우러리며 검덕과 통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심장수맥을 다진다.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의 그날의 유훈을 언제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영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광물중산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사상혁명,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의 그날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 중앙의 예술인들을 망라한 강경도 문화도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선봉부대입니다라고 활력에 넘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검덕과 통양의 로동계급에게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혁의 신념과 의지를 키워주시고 그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있어 검덕지구는 대와 대를 변혁의 력사로 수놓으며 전진할수 있었다.

하기에 그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흐른 2002년과 2009년에 검덕광업연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몰라보게 달라진 검덕의 전변을 두고 그러도 기쁘시어 만만치 않게 자랑한다는 감은은은 평가를 주시었다.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에 통양광산을 찾으셨을 때에는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하여 청춘광산으로 전변시킨 백금산의 광부들을 함들의 불길창조자들의 한 성원으로 시대 앞에 내세워주시었다.

언제나 로동계급으로 들어가서 태양의 모습으로 환히 웃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영상을 마음속으로 우러르고 또 우러리며 검덕과 통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심장수맥을 다진다.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의 그날의 유훈을 언제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영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광물중산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사상혁명,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의 그날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에 중앙의 예술인들을 망라한 강경도 문화도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선봉부대입니다라고 활력에 넘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검덕과 통양의 로동계급에게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혁의 신념과 의지를 키워주시고 그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있어 검덕지구는 대와 대를 변혁의 력사로 수놓으며 전진할수 있었다.

하기에 그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흐른 2002년과 2009년에 검덕광업연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몰라보게 달라진 검덕의 전변을 두고 그러도 기쁘시어 만만치 않게 자랑한다는 감은은은 평가를 주시었다.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에 통양광산을 찾으셨을 때에는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하여 청춘광산으로 전변시킨 백금산의 광부들을 함들의 불길창조자들의 한 성원으로 시대 앞에 내세워주시었다.

언제나 로동계급으로 들어가서 태양의 모습으로 환히 웃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영상을 마음속으로 우러르고 또 우러리며 검덕과 통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심장수맥을 다진다.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의 그날의 유훈을 언제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영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광물중산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강성대국 건설의 전향적구현을 위하여나가는 데서도 선봉적역할을 할 것을 믿고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뀐다. 그러나 변함없이 꽃같이 이 어지는 것은 우리 당의 로동계급을 고수하기 위

이제는 세월이 흘러 61년 생소대엔 새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기풍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61년생소대에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검덕에 첫 현지교시의 자욱을 새기신 1975년에 태어난 사람들도 또 하나의 채광소대가 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40년전 그날 검덕광산(당시)은 광물 매장량이 많고 그 몰 위도 높은 대단히 유망한 광산이라고 하시면서 광산을 크게 발전시키자면 기술혁명을 다그쳐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우리 당의 기술 혁명방향을 옹호관철해나가는 길에 변혁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당정책관철에 찬사할 때 마침내 세월의 갈피마다 거창한 변혁의 력사를 수놓아왔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광석을 다량운반, 다량처리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이 일어났다. 당정책관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적인 정신, 모든것을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닌 검덕의 로동계급은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짧은 기간에 대형장비로 트랜스미션수송선을 건설하였고 4, 5층년전처럼 전차운반체계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하여 광석운반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었다.

광석운반이 그야말로 다량화, 다량화되었다. 광석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데 맞게 선광처리능력을 높일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검덕의 광부들은 큰 규모의 선광장을 80년 대초도창조운동의 위대한 창조물로 일떠세웠다.

그뿐이 아니다. 심부지구에서 생산되는 고품위광석을 처리하는 2선광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어 연합기업소의 선광능력은 수십배로 늘어났다.

자기의 힘과 재능을 굳게 믿고 기술의 힘으로 비약적으로

하였다.

최근기간에만도 연합기업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13부문의 광석운반체통인 제13수직경과 제13보조수직경, 20수직경을 비롯한 수천m의 연장길이를 가진 대초도창조운동에 대한 개건 및 보수를 훌륭히 진행하여 생산전망을 확고히 열어놓았다.

제3선광장의 마광계통현대화도 훌륭히 완공되었다.

생산원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마광계통의 현대화를 밀고나가면서 연합기업소에서는 국가와 학원 과학원들의 방조밑에 개발고효는 지대의 특성에 맞게 높은 효과와 높은 다공성부재를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 도입으로 생산의 안정성을 담보하였고 새로운 조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광장과 부선장 등 전진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종합시뮬레이션을 확립하였다.

지금 연합기업소에서는 제3선광장의 마광계통현대화에 이어 파쇄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조금도 담보나 침체를 모르는 기술혁명의 불길은 우리 당정책을 실현으로 만들어나가는 연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에 의해 오늘도 거세치게 타나지고있다.

한 이목 일군들과 광부들의 투철한 정진성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이후 검덕에는 61년생소대가 생겨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검덕을 현지지도하신 1961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무어진 소대였다. 당의 요구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부모들의 투쟁정신을 터득하며 성장한 이들이기에 언제나 이들이 있는 곳마다에서는 자랑스런 위훈이 창조되었다.

제일 어렵고 힘든 채광장을 스스로 맡아 옮겨가면서 또 해마다 소대에 맡겨진 광물생산계획을 철저히 당수행하곤 하는 이들을 우리 당에서는 영웅소대로 시대앞에 내세워주었다.

나라가 시련을 겪던 어려운 시기에도 이곳 소대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더 많은 유색금속광물을 생산할 한마음과 대오의 앞장에서 전격로 열어나갔으며 오늘날은 간계회를 2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며 위훈의 창조자로 삶을 빛내이고있다.

우리 당의 평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한 영웅적투쟁의 길에서 안정민소대장은 선군시대의 공로자로 자라났고 많은 소대원들이 맡겨진 생산계획을 한달, 한분기씩 앞당겨 수행하는 혁신을 펼치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이 뜨겁게 새겨져 있는 영광의 일터를

룩 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시대에 또다시 태어난 영웅소대!

결세의 위인들의 대를 이어 계속되는 사랑과 믿음에 격동되어 검덕로동계급의 사상정신에서는 더 큰 양양이 일어나고 있다. 채광설비들이 하나하나 마를 지어 생산소대가 꾸러지기 시작하였다.

광산에서는 채광방법을 대담하게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였다. 로천체술로부터 심부채굴로 전환되어 20년나머 채광장을 리용하다 나니 품은 품대로 들이면서 생산성이 떨어졌던 것이다.

채광장에 남아있는 잔주들과 버려짐에 남아있는 광석까지 모조리 캐낼수 없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여러날을 걸쳐 생각을 합치는 과정에 막장광에서부터 광석을 모조리 털어내는 전면반포식채광방법을 창안하게 되었다.

새로운 채광방법을 도입하는 길은 곧 우리 당정책의 요구대로 채굴의 대형화를 실현하는 길이었다.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채광장확장공사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채광장 확장은 당면한 생산계획을 수행하는 데 힘치지 않은 대였지만 이들은 앞을 내다보며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이 엄하게 관철해나갔다.

현행생산량을 하면서 생강확장전투를 벌려자니 두 사람이 두둑, 세뿌의 일감을 맡아내고 뛰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나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늘어나는데 맞게 선광처리능력을 높일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검덕의 광부들은 큰 규모의 선광장을 80년 대초도창조운동의 위대한 창조물로 일떠세웠다.

그뿐이 아니다. 심부지구에서 생산되는 고품위광석을 처리하는 2선광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어 연합기업소의 선광능력은 수십배로 늘어났다.

자기의 힘과 재능을 굳게 믿고 기술의 힘으로 비약적으로

하였다.

최근기간에만도 연합기업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13부문의 광석운반체통인 제13수직경과 제13보조수직경, 20수직경을 비롯한 수천m의 연장길이를 가진 대초도창조운동에 대한 개건 및 보수를 훌륭히 진행하여 생산전망을 확고히 열어놓았다.

제3선광장의 마광계통현대화도 훌륭히 완공되었다.

생산원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마광계통의 현대화를 밀고나가면서 연합기업소에서는 국가와 학원 과학원들의 방조밑에 개발고효는 지대의 특성에 맞게 높은 효과와 높은 다공성부재를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 도입으로 생산의 안정성을 담보하였고 새로운 조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광장과 부선장 등 전진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종합시뮬레이션을 확립하였다.

지금 연합기업소에서는 제3선광장의 마광계통현대화에 이어 파쇄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조금도 담보나 침체를 모르는 기술혁명의 불길은 우리 당정책을 실현으로 만들어나가는 연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에 의해 오늘도 거세치게 타나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의 길에서 통양광산은 조국앞에 참으로 뚜렷한 자욱을 새겨놓았다.

1970-1980년대에 마그네사이트광산을 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기여를 한 광산, 우리 인민들의 기억속에 백금산으로 유명했던 광산이 오늘 또다시 전변의 새 모습을 띠었다.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 실현! 2009년 이곳 광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안전모를 쓰시고 이곳 대형채광장으로 들어가서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광석캐내는 일이 신선놀음이 되었다고 대단히 기뻐하시었다.

광석생산만 늘어났것이 아니다. 광석만 캐내던 광산에 마그네사이트가공기까지 훌륭히 꾸러졌다.

깊고깊은 산골마을에 수영장까지 갖추고 현대적으로 일떠세운 백금산이 새로 개건된 타아소, 유치원 등 광산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변을 두고 사람들은 정초기를 되찾는 광산이라고 말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력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현재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다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조국이 시련을 겪던 시기 통양광산의 생산도 크게 줄어들

있는 광석가공기부터 먼저 일떠세울 결심을 내리고 일군을 떨치게 되었다.

광산은 일어서기 시작하였다. 채광설비들이 하나하나 마를 지어 생산소대가 꾸러지기 시작하였다.

광산에서는 채광방법을 대담하게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였다. 로천체술로부터 심부채굴로 전환되어 20년나머 채광장을 리용하다 나니 품은 품대로 들이면서 생산성이 떨어졌던 것이다.

채광장에 남아있는 잔주들과 버려짐에 남아있는 광석까지 모조리 캐낼수 없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여러날을 걸쳐 생각을 합치는 과정에 막장광에서부터 광석을 모조리 털어내는 전면반포식채광방법을 창안하게 되었다.

새로운 채광방법을 도입하는 길은 곧 우리 당정책의 요구대로 채굴의 대형화를 실현하는 길이었다.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채광장확장공사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채광장 확장은 당면한 생산계획을 수행하는 데 힘치지 않은 대였지만 이들은 앞을 내다보며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이 엄하게 관철해나갔다.

현행생산량을 하면서 생강확장전투를 벌려자니 두 사람이 두둑, 세뿌의 일감을 맡아내고 뛰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나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늘어나는데 맞게 선광처리능력을 높일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검덕의 광부들은 큰 규모의 선광장을 80년 대초도창조운동의 위대한 창조물로 일떠세웠다.

그뿐이 아니다. 심부지구에서 생산되는 고품위광석을 처리하는 2선광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어 연합기업소의 선광능력은 수십배로 늘어났다.

자기의 힘과 재능을 굳게 믿고 기술의 힘으로 비약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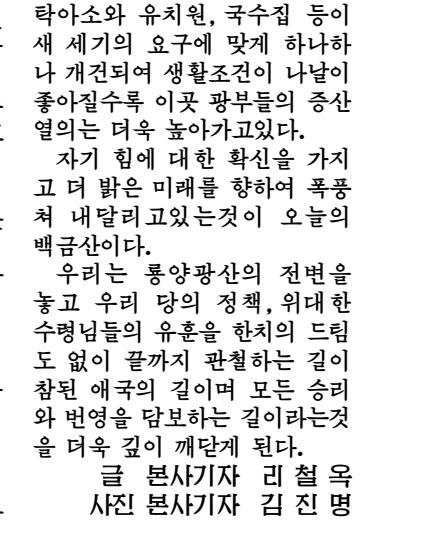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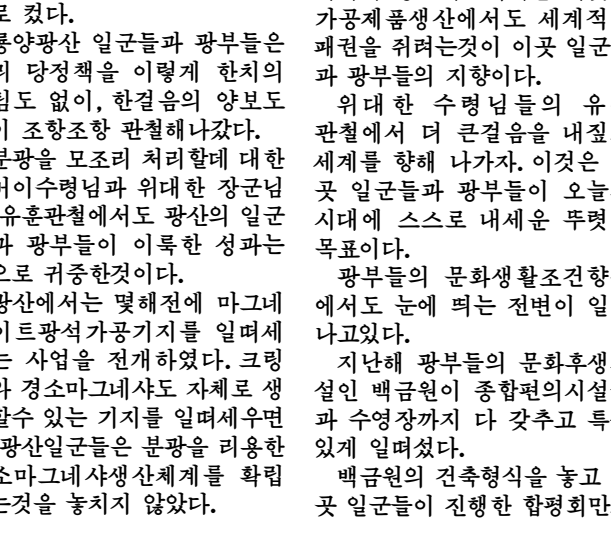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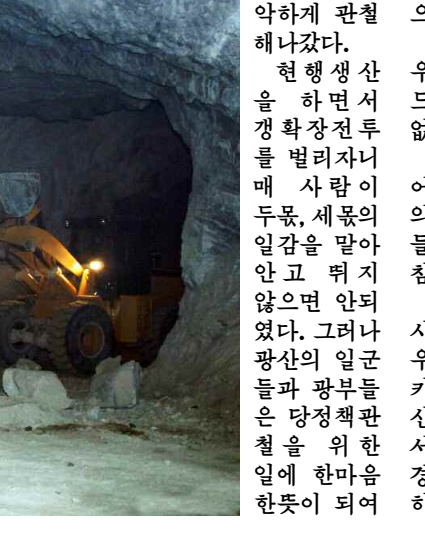
최근기간에만도 연합기업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13부문의 광석운반체통인 제13수직경과 제13보조수직경, 20수직경을 비롯한 수천m의 연장길이를 가진 대초도창조운동에 대한 개건 및 보수를 훌륭히 진행하여 생산전망을 확고히 열어놓았다.

제3선광장의 마광계통현대화도 훌륭히 완공되었다.

생산원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마광계통의 현대화를 밀고나가면서 연합기업소에서는 국가와 학원 과학원들의 방조밑에 개발고효는 지대의 특성에 맞게 높은 효과와 높은 다공성부재를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 도입으로 생산의 안정성을 담보하였고 새로운 조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광장과 부선장 등 전진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종합시뮬레이션을 확립하였다.

지금 연합기업소에서는 제3선광장의 마광계통현대화에 이어 파쇄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조금도 담보나 침체를 모르는 기술혁명의 불길은 우리 당정책을 실현으로 만들어나가는 연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에 의해 오늘도 거세치게 타나지고있다.





# 수령을 위하여 고동치는 불사조의 심장—조선로동당의 무식방패

## 사나운 불길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와 구호나무들을 결사보위할 단천시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들과 내무군인들에게 대한 이야기

수령사수전과 사회주의수호전, 인민보위전의 제 1선에서 싸우는 우리 인민보안원들의 모교는 방패가 새겨져있다.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마크를 새겨안고 빛나는 무식방패! 그 방패속에 담겨진 크나큰 믿음을 지켜 얼마나 많은 인민보안원들이 평화로운 나날에 한복을 서슴없이 바치고있었는것인가.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오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리 인민의

### 불속에서도 라지 않는 빛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경 석우혁명전적지구역과 멀지 않은 산밭에서 검은 연기가 타래처럼 올랐다. 뚝뚝이 일어난 산밭이 강한 바람을 타고 무서운 소리를 내며 밀려왔다. 사태를 예감한 단천시인민보안서 일군인 윤광남동무와 내무군인들의 긴장한 눈길은 한곳으로 합쳐졌다. 한길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발자취가 뜨겁게 어러지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하게 맞이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방향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선원들이 활동하면서 백두산3대장군을 청중하여 쓴 구호문헌들이 있는 석우혁명전적지였다.

바람속도는 초당 15m! 윤광남동무와 군인들의 눈에는 사납게 회오리치는 불길기 가즈르러온 원수의 무리들로 비껴들었고 심장은 세차게 놀 뻔했다. (안된다. 목숨보다 귀중한 구호나무들을 절대로 태우지 못한다.)

세세년전 전해가야 할 국보종의 국보인 구호나무, 그것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고 성세가 되어 혁명의 사령부를 사수한 항일혁명선열들이 물려준 수령결사옹위의 빛이었고 한번 다진 맹세 죽어도 버리지 않을 투철한 신념을 새겨주는 우리 혁명의 정신적지표였다.

윤광남동무가 앞장서서 구호나무를 있는 신중성으로 치달아올랐다. 인민보안원 유광현동무와 군인들이 따라왔다. 그뒤로 혁명전적지 강사 김정실동무와 전적지관리소 관리원 장재화, 허명수동무들도 달려올라왔다.

그들이 구호나무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구호나무들이 있는 구역에 산밭이 무섭게 덮쳐들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짙게 뒤덮었다. 사나운 불길은 비행기의 동음파도 같은 소리를 내며 구호나무의 우듬지를 타고 날아오르듯 불길의 사방에 떨어져내렸다. 혁명적구호문헌들을 사수하기 위한 결사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자극한 연기로 하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매캐한 가스가 코를 찌르며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윤광남동무가 다급히 소리쳤다. 《빨리 구호나무에 진흙을 바르라.》 누군가가 뚝뚝의 정황을 예견하여 구호나무주변에 마른해놓았던 진흙을 풀었다. 윤광남동무와 군인들은 구호나무의 끝말에 완경, 두검 진흙을 발랐다. 군복이 불이 당기고 얼굴이 화황 달아올랐다. 세찬 불길에 살점이 익어들었다. 그들은 그것을 용의식하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의 한몸은 새겨 있다 구호나무의 끝말에는 살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입술을 깨물며 진흙을 바르고 손에서 피가 나도록 주위의 흙을 파헤쳤다.

몸으로 불길을 막으며 진흙을 바른뒤 리선일동무가 문득 굳어졌다. 구호문헌이 의의진 옷부분에 손이 가닿지 않았다. 그는 진흙덩이를 가슴에 안고 안간힘을 쓰며 한 치만도 구호나무로 오르지 시작했다. 불바다속에서 전투를 벌이느라 그는 벌써 힘이 지친 상태였다.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여 구호나무에 오른 리선일동무는 마지못하진흙덩이를 끝말이 있는 곳에 가져다뒀다. 그리고 그는 힘껏 밀어붙였다. 얼마나 힘을 쓰는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었다. 온몸의 기력이 강그러져 그는 정신을 잃고 나무아래로 미끄러져내렸다. 그 순간 강한 열풍이 그를 끝까지 데려다 보냈다.

나무들이 불타 넘어지고 바위가 량랑 소리를 내며 부서져나가는 속에서 격전 도격전, 그들은 끝내 구호나무들에 진흙을 바르고야말았다.

윤광남동무가 열풍에 쓰러졌던 리선일동무를 찾아 업고 군인들과 함께 끝까지 내려왔을 때는 불길이 앞쪽동산에도 번져진 상태였다. 세찬 바람을 탄 불꽃기가 이쪽동산에서 저쪽동산으로 수백m나 날아오르며 모든 생명체들을 태워버릴듯 날뛰었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불! 끝까지 불의 도나기로 화하였다.

김일혁동무와 군인들이 불달린 건물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윤광남동무는 군인들과 함께 또다시 불붙는 건물에 뛰어들었다. 불속에 살점이 익어 떨어지나갔지만 그들은 당의 기본구호들과 정치도서를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건물밖에 도 불, 그들의 앞에는 불길에 휩싸인 끝까지 가로놓여 있었다.

이제는 그들의 힘도 극한점을 넘어섰다. 가물거리는 의식을 가까스로 가다듬으며 윤광남동무는 초상화를 품에 안은 유광현동무와 부상당한 리선일동무를 불길에 밀미치는 곳까지 데려내왔다. 그리고는 또다시 불길과 연기를 덮인 끝까지 발걸음을 돌리었다. 심한 화상을 입은 몸으로 건물들에 모시었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가슴에 품고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김

무비의 정신력이 최고표현으로, 모든 사고와 실전의 출발점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불사조의 용맹을 남김없이 펼친 단천시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들과 내무군인들의 영웅적위훈을 전한다.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었다. 스스로가 심장의 명령을 내리었고 불길속에 주저없이 뛰어들었다.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문헌을 지켜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었다.

《보안원동무, 이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자욱한 연기속으로 윤광남동무는 억척스레 걸음을 내질었다. 사신을 뚫고 나온 길로 다시 들어가는것이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 그 왜 몰랐을까. 하지만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는 사소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 보위전사의 사명감이 그를 불속으로 떠밀었다. 그가 불길을 맞받아나오던 그 한걸음한걸음은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항일의 오중총 7면대원들과 전희의 나날 최고사령부까지가 떨어졌던 시한탄을 안고 결사적으로 나가던 친위중대원들, 산군시대 인민보안원의 전영인 공화국영웅 김금수, 한평남동무들의 빛나는 최후와 잇닿아 있었다.

서로 부축하며 내려오는 군인들과 마주친 윤광남동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와 당의 기본구호들, 정치도서들의 안전상태를 거듭 알아보았다. 군인들에게 빨리 끝까지 빠져나가라고 이른 그는 건물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자기의 눈으로 끝까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 불길이 가세지고 자욱하던 연기가 걷힐 무렵에야 산밭이 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뛰어올라왔다. 여기저기에 쓰러진 인민보안원들과 군인들, 농장원들을 긴급구조하며 산밭짜기로 올라가던 그들은 불타버린 건물들사이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는 윤광남동무를 발견하였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안락까지 윤광남동무를 흔들며 깨웠다. 이윽하여 딱 다물려있던 윤광남동무의 입귀가 조금 열렸다. 《구호나무, 구호나무...》

《구호나무를 의우고 윤광남동무는 힘겹게 벌렁던 입을 다물었다.》 당과 동시에 머

리 담당인민보안원을 다른데 보내지 말아달라.》 윤광남동무와 영결하던 날, 자기 손으로 만든 흰 꽃을 한어루 안고 단천시 금봉동 72인민반에 사는 전옥필로인이 찾아왔다. 자기가 안고 온 꽃을 시인민보안서의 일꾼들에게 넘겨주며 시인은 목에다 말했다. 《내 땅이나 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윤광남동무의 친부모도, 손국식, 유광현동무를 비롯한 보안서의 일꾼들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에게 전옥필로인은 15년세월 전사자 가족의 친아들이 되어 변함없는 정성을 바쳐온 윤광남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몇번이나 보안서에 찾아오고 싶었지만 우리 땅남이 가 막았습다. 세상 평화가 바로 부모공대하는 자식은 없다면서...》

15년세월 남모르게 걸은 헌신의 길을 추하여 로인도 울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일꾼들과 보안원들은 눈물겨운 사연이 어린 그 꽃송이들로 화환을 엮어 혁명동지의 명전에 놓았다. 그 화환에 어찌 전사자 가족할머니의 마음만이 어렸다고 하랴. 윤광남동무가 자기 현유처럼 귀중히 여기며 전심을 바쳐 사랑하고 보위해온 인민의 마음이 모두 어려웠었다.

사람들은 윤광남동무의 고결한 삶을 두고 백금산에서 7호초각기의 영웅소대원들을 보며 자라난 사람이 다르다고 갈란하곤 한다. 백금산기슭에서 인생의 첫 시절을 보낸 그의 기억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7호초각기의 영웅소대원들이었다.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불보다 뜨거운 동지애로 뭉쳐진 집단, 한명의 락오자도 없이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판하여 모 두가 영웅으로 성장한 그들을 보면서 자라난 윤광남동무였다.

하기에 그는 때로는 7호초각기 소대장이 된 심정으로 말았이 대원들을 이끌었고 때로는 선동원이 된 심정으로 락오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꾸준히 교양개조하며 그들 모두를 백금산의 광채처럼 굳세고 순결한 수령결사옹위의 성들로 다듬어 우리 당의 두리에 쌓아올렸던것이다. 리선일동무 역시 그랬다.

아직은 인생의 초엽이었던 리선일동무에게 자랑이 있다면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인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교향에서 나서자겠다는것이였다. 누구에게나 교향자랑이 있다. 하지만 리선일동무의 마음속에 간직된 교향자랑은

단순히 남다른 자기 교향에 대한 긍지만이 아니었다. 수령결사옹위의 별로 빛나는 김정숙동지처럼 한생을 빛내어갈 맹세였고 신념이였다.

하기에 그는 비록 자기가 지켜선 초소는 적들과 총부리를 맞은 최전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어도 언제나 마음을 대사하지 기던데 세우려고 살아왔다. 리선일동무가 희생된 후 사람들은 다라버린 그의 군복앞에서 생생한채로 남아있는 청년동맹원증을 찾게 되었다. 최후의 시각 아마도 심장으로 보호하였을 청년동맹원증, 그것을 넣어두었던 보호판안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상이 정히 보편되어있었다. 열풍에 날려 끝까지 떨어져 의식이 흐려져가는 그 시각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상을 정히 보관한 청년동맹원증보호판에 한점의 불꽃도 떨어지지 않게 온몸으로 꼭 그러안았던것이다.

의식이 가물거리는 속에서 심장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상을 보위하며 그는 그러보았으리라. 백살구꽃 활짝 핀 온산덕에 학창시절의 동무들과 함께 오르던 잊지 못할 교향의 정은 모습, 오늘날도 수령결사옹위의 언덕에서 이 나라의 아들딸들을 감동하는 삶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평시에는 말이 적고 소심하다고 할 정도로 내성적이지만 본심임무수행에서는 맹수와 같이 용감하고 동지들에 대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도 남달리 뜨거웠던 리선일동무였다.

알고있는 동무를 대신하여 군무도 서고 밤새워 간호하던 일이며 자기 물건을 잃어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마음속깊이 뿌리내려있기에 어제날 무재복의 17명 영웅선열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오늘 범석골의 8명 용사들인 윤광남, 리선일, 유광현, 김일혁, 김성일, 최위성, 김남희, 조혜성동무들의 가슴을 격동시켰다. 여직진 신분이야 텔레비전에서만 오아오던 불꽃의 용사들, 그렇듯 훌륭하고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의 장자들이 바로 자기들 곁에 있었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가슴은 세차게 끓어올랐다.

리중, 김석순동무들을 비롯한 의식의 책임일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피와 살을 바치였다. 그들의 뒤를 따라 줄을 짓고 차체를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속에는 이름모를 나이런 소학교 학생도 있었다. 열살도 되지 않은 그 어린것이 꽃잎같은 마음으로 삼은 삼알 두알을 꺼내놓으며 《삼알 한알이 피 한방울이예요.》라고 말하며 의사들도 간호원들도 눈물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한편 병원의 의료진단과 평양과 도에서 내려온 유능한 의사들이 긴장한 구급소생진투를 벌이고있었다. 제일 난문제로 된것은 유광현, 김성일동무들과 같이 심한 화상으로 두손의 피부가 완전히 타버린 환자들의 치료대책이였다. 드러난 뼈조직이 감염되어 염증이 오기 시작한 상태에서 손목을 절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때 인민보안부의 어느 한 병원에서 내려온 황철진동무의 뇌리에 는 잊지 못할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생각났다. 주체38(1949)년 8월 내무성중앙병원(당시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중상을 입고 입원한 어느 한 군인의 다리를 절단하려고 한다는것을 아시고 《38선호랑이처럼》 자기를 꼭 교정하여 다시 초소에 세우자고 하시면서 병원일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었다.

이 땅 어디나 불수 있는 평범한 군인도 조국보위의 역센 성들로 보시고 혁명대오에 다시 세워주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에 고무된 의료일꾼들은 지혜와 힘을 합쳐 끝끝내 중앙당 다리를 잃지시켜 그 군인을 다시 초소에 내세웠다. ... 전설같이 아로세겨진 사랑의 기적이 태어난 병원에서 군의도 복무하고있는 황철진동무에게 있어서 손목을 절단하느라, 살려내느냐 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평등업적을 교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계시는데만 같이 황철진동무는 주저없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들은 다시 총을 잡아야 할 인민의 보위자들입니다. 손목이 아니라 손끝 한마디도 자를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환자도 의사도 무거운 정신적 부담을 이겨내야 하는 수송방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말 그대로 벨을 잡아내야 하는 그런 고통을 환자들 이 견디어 내는것은 더 어렵었다. 그러나 용사들

바린 주민을 도와 수신타 밭길을 걸던 일, 어느해 겨울 주민지구의 피수도량이 얇아 붙은것을 보고는 스스로 손에 도끼를 들고 어지러운 얼음을 맘껏 깎아버린 일들을 추억하며 동지들은 말하였다.

리선일동무가 다시 살아나 두번다시 그런 정황에 맞닥뜨린다면 그는 열번, 백번 수령결사옹위의 앞장에서 불속에 뛰어들것이라고. 어제 리선일동무뿐이라. 윤광남, 리선일동무들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불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보위하고 구호나무들을 구원한 유광현, 김일혁, 김성일, 최위성, 김남희, 조혜성동무들의 지나는 생활속에도 그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저 하늘의 별무리마냥 밝 차있다.

바로 이런 인민보안원들이 평범하고 케사로운 나날에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었기에 뜻밖의 위험이 닥쳐올 때마다 제일먼저 달려와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것 아니던가. 양이 안겨준 혁명의 무기, 계급의 총대를 잡고 인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남모르는 위훈과 헌신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주인공들, 그들은 평화로운 날에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선전에 한몸을 다 바쳐온 보위전사, 전위투사들이였다.

그날 저녁 윤광남동무의 집으로 배낭을 진 한 청년이 찾아왔다. 그로 말하면 개인리거주의에 몰락이 나라앞에 엄중한 죄를 짓고 법적처리를 받았을 때 윤광남동무가 담담했던 청년이였다. 그때 윤광남동무가 그 청년을 어떻게 교양했는지는 알수 없다. 다만 지난날의 지은 죄가 너무도 무거워도 과장동지의 평전에 나설수 없다고, 자기를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과장동지앞에 몇몇가지 위하여 발전조건 설정으로 떠난던 길에 들렀다는 그의 말속에서 어지러운 과거와 영원히 결별하고 윤광남동무가 했던 신념의 대오에 들어서려는 한 인간의 불같은 열망을 느낄수 있었다.

이제 그 청년 하나만이라. 뜻밖의 제안은 우리의 대오속에 당과 수령을 만드는 신념과 의지가 투철했으며 꿈도 많았고 리상도 높았던 두 용사가 있었다. 하지만 전진하는 우리의 대오속에 는 한 단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았다. 윤광남, 리선일동무들이 그토록 심혈을 다 바쳐 사랑했던 인민들이, 희생된 선수들의 정신과 뜻을 기발처럼 넘겨받은 주위사람들의 보위전사들이 그 자리를 더욱 억세게 지켜서 있었다.

하기에 우리의 대오속에 영생하는 삶은 있어도 죽음이란 없는것이며 이러한 진리로 찬신성이 교동치는 신념의 대오속에 민자리는 없다.

부속에서 동지들을 안고 나오던 윤광남동무가 슬막하는 화염에 고백없이 구호나무에 진흙을 바른뒤 리선일동무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어느덧 단천시인민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평양으로 떠나는 자기를 눈물속에 비껴워주며 꼭 안팎된 몸으로 다시 만나자고 울먹던 인민들, 바로 자기의 몸에는 친부모가 물려준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민의 피, 동지들의 피가 생명을 수호하고있으며 그들이 바친 한점한점의 피가 자기의 온몸을 감싸고있었던것이다.

이후빨리 자신들을 혁명초소에 세워주기 위해 전투가 되고 혈육이 되어준 고마운 사람들! 유광현동무는 오열을 짚어삼키며 가까스로 말했다. 《교감습니다. 동지들!》 이때 뒤따라오는 김성일동무의 밀착속에 서 났으나 저력있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

이 심장 높뛰는 한 일원단신 따르리 우리 당 위대한 승결에 운명의 피를 이 으리

김성일동무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였다. 거어 다시 일어나 수령보위의 총대를 잡겠다는, 희생된 동지들의 뚝치 합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 신념의 맹세가 어린 그 노래를 모두가 마음속으로 따라불렀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윤 광 남 동 무 리 선 일 동 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